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영적 순례 여행을 통해 주님의 깊은 은총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일년 동안 봉사할 소중한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된 소명을 받드시기 바랍니다.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12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지방회에서 김철수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김인걸 권사님께서 장로로 임명받으십니다.

중구용산지방이 주관하는 태안봉사가 14일(목)에 있습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5~16일 용인 심소재에서 열립니다.

임종길 씨와 김경애 씨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때 - 16일(토) 오후 2시 곳 - 청파교회 예배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2008학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는 이들>

- 교육부장 및 교장 : 김인걸
- 유아유치부: 한선희(부장) 최희영 이수정 김수진 최문희
- 아 동 부: 광권희(부장) 이명희 박인혁 윤 윤 하진솔 김서현 권아주 김진영
- 중 고등부: 황경순(부장) 장성호 김민주 연태호
- 청 년 부: 조항범(부장)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을 시작한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그 안에 하늘의 불꽃을 일으켜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영원한 불꽃이 우리 심장 제단에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소용돌이치는 우리 마음에 고요함을 주십시오. 우리 속에 있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해주시고, 무지와 죄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인도하게 해주십시오.

허망한 것에 집착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살아가려는 새 마음 새 뜻을 우리 안에 새겨주십시오.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붙잡아야 할 것은 든든히 붙잡게 해주십시오.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씨름하는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한완식 임정자 한상의
 정영선 김준우 우순덕 김정길 최숙화 김정섭 김지윤 백요현 서원금
 안정숙 윤미경 윤수진 이예정 이정규 이인섭 임원민 임수연 정복순
 조병주 홍순구 안홍숙 김순복 전영웅 정한구 조문규 진정숙 김재흥
 최희영 전세종 오정숙 정미경 박어민 김진경 송동준 권미숙

월정헌금:

김영순 김영환 이희균 송의섭 이성범 정두리 조순덕 이은자 김용태 박정숙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장영숙 윤정덕 구성실 우순덕 박석희 조향미 김지은
 문금석 육현정 광상언 이인섭 김정애 전세종 박창운 허정윤 하진채
 전성오 오정숙 무명4

100주년 기념헌금 :

권미숙 장영숙 우순덕 이재문 무명2
 (100주년 헌금 누계 : 162,700,000원)

	장혜숙	장혜숙	연 합 수 회	장혜숙
	노순옥	정경례		서정순
	임정자	임정자		임정자
	문영혜	박경선		김진경
	안정숙	박애순		박옥순
	박홍재	곽권희		박홍재
	박효선	허정윤		박효선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이형숙	권미숙		이정은
	안홍숙	오현정		안홍숙
	백혜숙	정옥영		정옥영
	송양진	유경순		송양진
	이영란	박미영		방극숙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흐르는 삶만이

-- 이해인

구름도 흐르고
강물도 흐르고
바람도 흐르고

오늘도
흐르는 것만이
나를 살게 하네

다른 사람이 던지는 칭찬의 말도
이런저런 비난의 말도
이것이 낡은 기쁨과 슬픔도
어서어서 흘러가라

흐르는 세월
흐르는 마음
흐르는 사람들

진정
흐르는 삶만이
나를 길들이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더욱 겸허히 몸을 낮추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살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매 순간 우리에게 말 건네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려듣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바름을 따르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이웃들을 대하겠습니다. 분열과 불화가 있는 곳에 사랑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의 맥잡기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기도 / 임원민 집사	기도 / 박홍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장성호 선생 윤석철 장로	인도자 안길상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박혜경(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성스러운 연결고리

트로슬리에에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두 개의 장소가 있다. 로라투아(L'Oratoire: 기도소)와 라 포레스티에르(La Forestiere: 쉼터)가 그것이다. 로라투아르는 온종일 복되신 성체가 현신되어 있어 사람들이 언제나 찾아들어 침묵 속에 경배를 드리는 기도실로서 비교적 어두운 공간에 조그마한 장례대와 방석들이 놓여 있는 커다란 방이다. 실내는 목직 한 짚빛 돌들로 쌓은 두꺼운 석벽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벽 한가운데에 반원형으로 뚫은 널찍한 공간이 있다. 바로 거기에 성광이 안치되어 있고, 그 양옆에 세 개씩 놓인 기름등잔이 성광을 호위하고 있다. 언제나 아름답고 싱싱한 꽃이 놓여 있고, 사람들은 양쪽 벽면에 무릎을 꿇거나 앉거나 엎드려서 기도를 바친다.

로라투아르는 많은 면에서 라르슈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다. 한없는 사랑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간단없이 바쳐지는 침묵의 기도야말로 라르슈를 살아 있게 만드는 숨결이 되고 있다.

나는 로라투아르에 들어설 때마다, 기도드리기가 힘들 경우라도 그곳에 붙잡혀서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 평온한 안식이 나를 둘러싸는 느낌을 받는다. 마치 기도실 자체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바쳐주는 듯한 기분이다. 내가 아는 한, 기도가 이처럼 피부로 느껴질 만큼 실감나는 장소도 별로 없다. 기도드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곳에 가면 적어도 기도로 충만된 대기를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떼어놓곤 한다.

내가 로라투아르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가난한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음식과 음료가 되기까지 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무엇 하나 거두어들이지 않으시고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하시는 하나님, 스스로를 너무나 깊이 감추시기에 신앙의 눈이 아니면 알아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들 대부분이 조력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쉼터’, 라 포레스티에르가 있다. 라 포레스티에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걸지도 말하지도, 혼자서 옷을 입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다. 혼자서는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보거나 듣지를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그들의 신체는 지독하게 비꼬여 있으며 걸핏하면 심한 통증에 시달리곤

한다.

라 포레스티에르에 들어가면 언제나 너무나도 고요한 정적 때문에 놀라게 된다. 장애인과 조력자들이 영위하는 삶은 많은 점에서 수도생활 같은 느낌을 준다. 조력자들은 청소하랴, 요리하랴, 먹여주랴, 입혀주랴, 가만히 붙들어주고 있으랴 눈코 뜰 새가 없지만, 그 모든 일을 더없이 조용하게 해낸다. 남녀 장애인들의 처절한 고뇌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며 절규며 고향소리가 어찌다 한참씩 정적을 깨기는 한다. 하지만 대개는 고요하기만 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음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심오한 것인지 와서 보라고 나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라 포레스티에르 사람들이다. 실제로 나는 이곳에서 예수를, 내가 로라투아르에서 경배하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숨어 계시다. 이곳에도 그저 자리하는 현존의 기도가 부단히 이어지고 있다. 이곳에도 더없는 가난이 존재하고 있다.

트로슬리에 와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영국인 토니가 어제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중요한 두 계명 가운데 첫 번째는 로라투아르에서 실천하고, 두 번째는 라 포레스티에르에서 실천합니다. 이곳 트로슬리에에서는 예수께서 서로 유사한 두 가지 계명을 내리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토니가 한 말을 하루 종일 생각해보았다.

--헨리 뉴엔, <<새벽으로 가는 길>> 중에서

